

치솟는 물가... “내년이 더 걱정”

삼겹살·짜장면 등 외식 물가 5~10% 상승, 배달비 음식 3만원대로
교육·학원비 부담도 크게 증가 ... 내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전망

“얼마나 더 오르려는지. 벌써 내년이 걱정입니다.”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43)씨는 치솟는 물가에 걱정이 앞선다. ‘한부모가정’으로 벌어도, 자녀 돌봄도 오로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탓에 그 부담이 더 크다고 한다.

김씨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먹는 양이 엄청 늘어난다. 퇴근 후 아이들 밥 챙길 시간이 부족해 외식을 자주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대출금리도 올라 배달 고정 지출이 늘면서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삼겹살과 짜장면 등 광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외식 품목이 지난해보다 5~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도 오르면서 시켜먹는 주요 배달 음식(최소 주문 기준)은 2만원을 넘어 3만원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식자재와 외식비 상승세는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삼겹살(국산·200g) 평균 판매가는 1만

4444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찌개, 백반도 지난해 평균 가격은 7800원으로 지난해보다 9.86% 올랐고, 짜장면도 8.77% 오른 6200원으로 파악됐다. 갈국수도 11.11% 오른 8000원으로, 김밥도 7.41% 올라 2900원이다.

참가격에서 표기하는 음식이나 요금의 가격은 평균 값을 뜻한다. 광주의 김밥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분식 프랜차이즈의 김밥은 한 줄에 평균값인 2900원을 훌쩍 넘어 4000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어느 해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배달음식 물가는 이보다 더하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 가장 저렴한 메뉴가 1만6000~1만8000원 선으로, 배달비 3000~5000원을 포함하면 2만원을 넘어선다. 피자 가격도 올라 주요 피자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3만원에 육박한다. 이밖에 중국음식도 배달로 시킬 경우 8000원짜리 짜장면이나 짬뽕 두 그릇만 시켜도 배달비까지 2만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물가부담이 커지다 보니 서민들은 당장 외식비부터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 맨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 19세 이상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 항목’을 물어보니 ‘외식비’를 택한 비중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료품비가 28.3%로, 의류비(12.1%), 문화여가비(9.9%), 주류·담배 구입비(5.1%) 등이었다.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옥죄는 것은 외식비 뿐만이 아니다. 참가격의 공공요금 가격정보를 보면 도시가스(가정, 취사) 소비자요금은 월 1만677원으로, 지난해보다 38.93% 올랐다.

또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고등학생 학원비는 전년 대비 4.8% 올랐고 가정학습지는 6.4%, 운동학원비 4.9% 등 교육·학원비 부담도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대출 상환 압박과 생활물가 부담이 가중돼 세밀은 좁고 여수선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이 오르자 광주시는 최근 택시요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된 이후 가공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가공식품이 오른 만큼, 외식물가 역시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에 많은 눈이 내린 18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위로 하얀 눈이 쌓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20cm 폭설, 해갈에 도움 될까

하늘·바닷길 막히고 교통사고 속출
오늘 오전까지 눈 ... 빙판길 ‘조심’

주말과 휴일에 내린 폭설로 광주·전남지역의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가 하면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특히 15cm 내외의 폭설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휴일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내린 눈의 최심적설량(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측정된 양)은 광주시 남구가 18.8cm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 18cm, 서구 풍암 16cm, 북구 14.5cm, 동구 조선대 14.1cm 등의 눈이 내렸다. 전남에서는 무안 20.4cm, 함평 월야 18.8cm, 영광 17.2cm, 화순 16.3cm, 장성 15.1cm, 보성 14.6cm, 나주 다도 13.4cm, 목포 11.8cm 등의 눈이었다.

광주공항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출발하는 6편의

항공편과 밤 11시 40분까지 도착하는 6편의 항공편 등 모두 12편의 항공편이 운항을 취소했다. 무안국제공항도 태국 방콕을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고 국내선 출발·도착 4편이 결항했다.

대설특보와 강풍·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남 여객선 전 항로(54항로 88척) 운항이 중단됐다.

폭설이 휴일과 겹치면서 제설작업이 미흡해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새벽 3시 4분께 보성군 회천면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도돼 운전자가 경상을 입는 등 차량이 눈길에 구르거나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골목길은 제외하더라도 도심 간선도로마저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북구 건국동에서 동구 문화전당까지 평소 30분 거리를 1시간 이상 운행해야 할 정도였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 탓에 대다수 운전자들이 시속 20km 정도로 운행했음에도 정차나 출발시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애를 먹어야 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상수원인 동북댐과 주암호 주

변인 화순, 순천, 보성 등지에 14~16cm의 눈이 내리면서 가뭄 해소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상당수지만, 실제 해갈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눈은 습식눈(물기를 머금은 눈)일 경우 적설량의 10분의 1을 강우량으로, 건식눈(물기 적은 눈)은 30분 1을 강우량으로 환산한다. 하필 이번 눈은 건식눈으로 동북댐·주암호 주변의 적설량을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5mm 내외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강우량은 발작물 해갈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이나 계곡의 물줄기를 따라 흐를 정도는 아니어서 저수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에 19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져, 19일 광주 예상 적설량은 3~8cm, 전남 서해안은 10cm”라면서 “19일 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설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빙판길이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출근길 안전운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 ▶2면

시험문제 베끼는 교사들 - 실태와 문제점 ▶6면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 - 건축의 공공성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2weeks
고함양 고강도 레티놀 분기형
활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